



통번역학연구 제26권 3호

ISSN : 1975-6321(Print) 2713-8372(Online)

노트테이킹과 연계한 영한순차통역의 누락 및 오역 개선 방안 고찰

김훈밀

To cite this article : 김훈밀 (2022) 노트테이킹과 연계한 영한순차통역의 누락 및 오역 개선 방안 고찰, 통번역학연구, 26:3, 1-24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노트테이킹과 연계한 영한순차통역의 누락 및 오역 개선 방안 고찰

김 훈 밀*

차례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2.1. 노트테이킹과 순차통역
- 3. 연구 방법
 - 3.1. 참가자 및 자료 수집
 - 3.2. 자료 분석
- 4. 분석 결과
 - 4.1. 학생 영한순차통역에서의 누락과 오역의 정도
 - 4.2. 노트테이킹과 연계된 누락과 오역
 - 4.3. 순차통역의 누락 및 오역을 초래하는 노트테이킹 유형
- 5. 결론 및 함의

〈Abstract〉

Kim, Hoonmil. (2022). Exploring Ways to Reduce Omissions and Mistranslations in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via Improving Note-taking.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26(3), 1-24.

This study explores how much of omissions and mistranslations in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are related to the problems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http://dx.doi.org/10.22844/its.2022.26.3.1>

in note-taking, and investigates ways to reduce omissions and mistranslations in interpreting through improving note-taking. Eleven first semester students in a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graduate program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interpreted a video clip on the US-Korea relationship as part of their mid-term exam. Their interpreting was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their notes and the source text. The omissions and mistranslations in the interpreting were tracked back to their notes to see whether and how they were marked on the notes, and how that in turn affected the interpreting output. Analyses found that around 80% of omissions and 50% of mistranslations were absent from the notes; 50% of mistranslations were marked on the notes but with some issues. Further analysis of the notes revealed three patterns of note-taking that mostly lead to mistranslations: 1) poor structuring, 2) wrong key-words, 3) unrecognizable symbols and abbreviations.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주 제 어 : 노트테이킹, 영한 순차 통역, 누락, 오역, 충실성

Key Words : note-taking,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omission, mistranslation, fidelity

1. 서론

성공적인 순차통역의 정의 및 요소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통역의 주제나 목적, 연사나 상황에 관계없이 통역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ST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fidelity)이다(Gile, 1999; Pöchhacker,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통역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충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통번역 훈련 중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순차통역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6가지로 구분한 피치(Ficchi, 1999)는 누락(omission)과 오역(contre-sen)을 주요 오류로 구분하였으며, 국내 학부생의 통역 오류를 분석한 김혜영(2022)의 연구를 통해서도 누락과 오역은 영한 순차통역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오류임이 보고되었다.

순차통역에서 누락과 오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럿이 있지만 한 번에 통역사가

옮겨야하는 원발화(ST)의 양이 많은 경우 통역사의 기억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러한 기억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노트데이킹이다(진실희 외,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은 순차통역 학습 시 노트데이킹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김한식, 2002; 임순정, 2019), 순차통역 수업에서 노트데이킹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도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유경, 2014; 임순정, 2017; 김보애, 2019; 진실희 외, 2019).

최근 들어 노트데이킹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고찰한 연구(임순정, 2017; 진실희 외, 2019; 김훈밀, 2021; 김혜영, 2022)가 보고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순차통역의 주요 문제인 누락과 오역을 노트데이킹과 직접 연계하여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노트데이킹의 주요 목적이 통역사의 기억력 부담을 덜어주어(이창수, 2001) 궁극적으로 연사의 발화 내용을 오류나 누락 없이 잘 전달하는 것(서유경, 2014)임을 상기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순차통역과 노트데이킹을 연계한 교수법을 통해 순차통역에서의 누락과 오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BA순차통역의 경우 통역 결과물에서 발견되는 오류가 노트데이킹 스킬 상의 문제인지 청해(LC) 상의 문제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BA순차통역의 누락과 오역에 작용하는 원인이 복합적이고 이를 완벽히 구분해 내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BA순차통역의 누락과 오역 중 노트데이킹 스킬 보완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이며, 누락과 오역으로 이어지는 노트데이킹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유형화하여 도출하는 것은 순차통역 및 노트데이킹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원 1학기 학생들의 영한 순차통역 수업에서 수집한 순차통역과 노트데이킹 자료를 토대로 통번역 대학원생들의 영한 순차통역에서 발생하는 누락과 오역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누락과 오역이 노트데이킹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노트와 통역 결과물을 대조·분석하여 순차통역의 누락과 오역 중 노트데이킹 상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비중을 산출하여 노트데이킹 개선이 BA순차통역의 충실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순차통역에서 누락과 오역을 유발하는 노트데이킹 상의 특성(패턴)을 파악하여 BA순차통역에서의 누락과 오역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

해 얻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의 영한 순차통역에서 누락과 오류의 발생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 2) 위 1)에서 발견된 누락과 오류 중 그 원인을 노트테이킹에서 찾을 수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즉, 노트테이킹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 3) 영한 순차통역에서 누락과 오류를 초래하는 노트테이킹의 유형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노트테이킹과 순차통역

노트테이킹과 순차통역과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 중 대다수는 노트의 양, 언어, 구조(계층화), 효율성(핵심어) 등 노트 내 다양한 요소가 순차통역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이지은 외, 2012; 서유경, 2014; 이미경, 2014; 이주연, 2017; 임순정, 2017; 김보애, 2019; 김혜영, 2022). 다른 통번역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노트테이킹 관련 연구에서도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는데 - 언어쌍 조합, 통역 방향, 연구 참여자의 통역 숙련도(학부생 vs. 대학원생 vs. 전문 통역사), 참여자 규모 등 - 선행연구의 결과를 변인 별로(영어-한국어 언어쌍, 통역 방향, 참여자의 통역 숙련도) 구분하여 나눌 경우 각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들 간의 연계성이 낮아져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노트테이킹 요소를 중심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2.1.1. 노트테이킹 양과 순차통역

서유경(2014)은 소규모의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학생들의 BA순차통역, AB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을 비교하여 노트테이킹의 분량, 효율성(노트 중 핵심어휘 비율), 언어가 순차통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노트테이킹 분량과 순차통

역 결과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높은 순차통역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ST 총 단어 수의 30% 수준에 가까운 노트를 기록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노트 분량과 순차통역 품질이 음이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적정 수준의 노트 분량이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미경(2014)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영순차통역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노트를 비교 분석하여 노트와 순차통역 품질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품사별 노트된 어휘 수(명사, 동사, 수식어, 연결어), 사용언어, 기호 등 학생들의 노트 결과물을 9개 항목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순차통역 점수가 높고 낮은 집단 간 노트에 사용된 품사 및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고 노트 총량에만 차이를 보였다. 통역 점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의 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노트테이킹을 많이 할수록 인지능력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 다른 작업을 잘 할 수 없게 되어 순차통역 품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노트테이킹 분량과 순차통역 품질 관련해서는 엇갈리는 결과도 상당 수 보고되었다. 이주연(2017)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1년생, 2년생과 전문 통역사의 AB, BA 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을 분석한 후 노트 분량에 있어서는 2학년과 전문가가 비슷한 양을 기록한 반면, 1학년은 적은 양을 노트하였음을 발견하여 노트 분량과 순차통역 품질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이는 이미경(2014)의 연구에서 발견된 음의 상관관계와는 반대되는 결과인데 연구 참여자가 이주연의 연구에서는 대학원생과 전문가였던 반면 이미경의 연구에서는 학부생이었던 점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학원생과 전문가가 다루는 순차통역 ST는 학부생이 다루는 ST에 비해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한 번에 통역해야하는 분량이 많으므로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량의 노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그룹 간 다양한 태스크를 조정하는 조정 능력의 차이 및 노트테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 청취 정도에 따라서도 이러한 결과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생은 적극적인 분석 없이 들리는 내용을 단순히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학원생과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청취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적극적 청취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트 분량이 많아지면 순차통역 품질이 낮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로 이들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통역 숙련도에 따라 노트 분량과 순차통역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트랑 관련된 해외 연구로는 스페인어-덴마크어간 BA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을 분석한 담(Dam, 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문 통역사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노트랑이 많을수록 순차통역 결과물의 품질이 높은 것이 발견되어 노트랑과 순차통역의 관계는 언어쌍의 영향보다는 통역사의 숙련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며 숙련도가 낮은 경우 노트랑이 적은 것이, 숙련도가 높은 경우 노트랑이 많은 것이 통역의 품질을 높임을 보여준다.

2.1.2. 노트테이킹 언어와 순차통역

노트에 사용된 언어 관련하여 담(2007)의 연구에서는 출발어(B언어) 비율이 높을수록 순차통역 결과물의 품질이 높은 것이 보고되었다. 이주연(2017)은 노트 언어에 있어서는 대학원 1학년, 2학년, 전문가 집단 모두 A, B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AB 순차통역에서는 세 집단 모두 A언어(한국어) 사용 비율이 B언어보다 높았고 (약 6:4), BA 순차통역에서는 1학년>2학년>전문가 순으로 B언어의 비율이 높음을 보고하여 두 언어방향에서 모두 출발어 사용 비율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한-노 순차통역을 분석한 서유경(2014)의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대다수가 (7명 중 6명) AB, BA통역에서 모두 A언어인 한국어로 노트를 하였고 한 명만이 AB는 한국어, BA는 러시아어로 노트하였음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B언어로 노트한 학생의 경우 정보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발어로 노트한 것으로 유추하였다. 반면, 영어-중국어, 중국어-영어 양방향 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을 분석한 첸(Chen, 2017)은 방향에 관계없이 노트테이킹 언어로 영어가 우세하게 사용됨을 보고하였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트 언어와 순차통역과의 관계는 사용된 언어쌍, 통역 방향, 통역사의 숙련도(학생 vs. 전문가)에 따라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국어-영어, 한국어-러시아어의 경우 언어 방향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 언어(영어와 한국어)가 우세함을 보인 반면, 한국어-영어, 한국어-일본어의 언어쌍에서는 통역 방향, 통역사의 숙련도 등에 노트에 사용되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트 언어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나 언어를 쓰는데 소요되는 노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어나 러시아어와

같이 효율적 작성이 다소 어려운 언어는 통역 방향에 상관없이 노트 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노트 작성에 있어 효율성에서 차이가 없는 언어쌍의 경우 통역 방향 및 통역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노트에 사용되는 언어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2.1.3. 그 밖의 노트테이킹 특성과 순차통역

대부분의 노트테이킹 연구가 노트 결과물을 집중 조명한 것과 달리 노트테이킹 과정을 조명한 연구도 있다. 이지은과 최문선(2012)은 대학원 학생과 전문 통역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펜을 이용하여 노트테이킹을 수행하게 한 후 노트테이킹 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하고, 노트테이킹을 통역 산출물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순차통역에 도움이 되는 노트테이킹 스킬 두 가지와 방해가 되는 노트테이킹 한 가지를 제시하였다. 도움이 되는 스킬로는 ‘동적 노트테이킹’과 ‘통사 구조를 분석한 노트테이킹’을 꼽았으며 순차통역에 방해가 되는 스킬로는 기호사용의 비밀관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동적 노트테이킹이란 노트테이킹을 할 때 들리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만 하지 않고, 필요 시 노트를 거슬러 올라가 기억해 둔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보다 최근에는 노트테이킹의 계층화 정도와 순차통역 품질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도 있다. 김보애(2019)는 노트에서 구조의 시각화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세로방향 배치, 행 들여쓰기, 단락 선 긋기, 대각선방향 노트하기, 세로방향 노트하기 등을 제시하였으며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순차통역, 설문조사, 노트를 토대로 노트테이킹 계층화와 순차통역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층화를 하기 위해 노력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트테이킹 과정에서 계층화를 많이 수행하였고 순차통역 점수 또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노트테이킹과 순차통역과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적 노트테이킹, 통사구조를 반영한 노트테이킹, 계층화된 노트테이킹, 고효율성(핵심어) 노트테이킹은 순차통역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비밀관적 기호사용은 순차통역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셋째, 학부생의 경우 노트 분량이 많을수록 순차통역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대학원생과 전문가의 경우 노트 분량이 많을수록 또는 ST의 30%에 근접할 때 순차통역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트 언어는 작성이

용이한 언어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연구 방법

3.1. 참가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1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학원 입학 후 통역 훈련을 시작한 신참 통역 훈련생에 해당한다. 일부 참가자는 업무의 일환으로 짧은 통역을 수행해 본 경험은 있었으나 노트테이킹을 수반한 정식 통역 경험은 없었다. 참가자들의 성별은 여성 9명, 남성 2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30대가 주를 이루었다. 참가자들의 모국어는 모두 한국어였다. 참가자들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 1] 참가자 기본 정보

성별 (남:여)	2: 9
연령	20대: 3명 30대: 6명 40대: 2명
전문 통역 경력	유: 0명 무: 11명

연구자는 학생들의 영한 순차통역 수업을 담당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2년 1학기 중간고사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수행한 영한 순차통역 녹음 파일과 순차통역 중 작성한 노트를 수집한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 전에는 노트테이킹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중간 고사를 보기 전 연구자가 맡은 영한 순차통역 수업 중 짧게 3-4 차례에 걸쳐 노트테이킹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개별 학생들의 노트에 대해 간략한 피드백을 1회 제공하였다. 순차통역 중간고사에 사용된 ST는 한미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Enduring Partnership: South Korea and US relations’라는 제목의 49분짜리 동영상으로 그 중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두 꼭지로 나누어 시험에 사용하였다. 아직 학생들의 노트테이킹 스킬이 숙련되지 않아 ST 분량이 길어질 경우 커버리지가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수업 중 학생들의 퍼포먼스에 기초하여 통역 한 꼭지 분량은 1분 정도의 단위로 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ST는 111개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동영상의 평균 발화 속도는 1.85 단어/sec로 전사본은 [부록 1]에 제공되어 있다. 참가자의 노트, 순차 통역 녹음본 및 전사본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3.2. 자료 분석

3.2.1. ST 분석

순차통역 결과물의 누락과 오역을 노트와 매핑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ST를 ‘의미 단위’로 나누었다. 여기서의 의미 단위란 본 연구에서 오역과 누락 건 수를 집계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용한 단위로 순차통역의 충실성을 파악할 때 누락이나 오역으로 판정하기에 적합한 ST의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이는 대체로 내용어(content word)와 일치하나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같이 내용어 2-3개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기도 한다.

노트테이킹을 연구한 선행연구 중 한영 순차통역을 대상으로 한 임순정(2017)의 연구에서는 ST를 어절¹⁾ 단위로 나누어 TT와 매핑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통역 방향이 영한이므로 ‘어절’을 노트의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영한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ST를 특정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사례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노트의 단위를 선행연구에서 차용할 수 없었다. 이에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1968: 61-62; 임순정, 2017 재인용)가 통역의 단위로 사용한 ‘의미/아이디어’의 개념과 “노트테이킹에서의 아이디어란 ‘주어+동사+목적어 군’을 의미한다”는 길리스(Gillies, 2005: 37)의 정의를 참고하여 영한순차통역에서 누락과 오역의 단위로 사용하기 적합한 ‘의미 단위’를 고안하였다.

ST 전체를 의미 단위로 구분한 뒤 각 의미 단위별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ST의 첫 문장은 아래와 같이 의미 단위로 나누어졌다.

S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by South Korean private

companies began at the turn of the century, led by Hyundai Motor Group.

의미 단위: Foreign direct investment(1) //in the US(2) //by South Korean private companies(3)// began(4) //at the turn of the century(5), //led by Hyundai Motor Group(6).//

ST를 의미 단위로 구분한 후 참가자들의 실제 통역 결과물을 사용하여 단위 구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의미 단위 (3)의 South Korean private companies의 경우 첫 분류에서는 두 개의 의미 단위로 나누었으나 학생들의 통역을 살펴본 결과 통역이 된 경우 모두 ‘한국 기업’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역되었고, 통역이 누락된 경우 ‘한국’과 ‘기업’이 모두 누락되는 양상을 보여 이를 두 개의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또 의미 단위 (6)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led by와 Hyundai Motor Group의 두 개의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으나, 통역 결과물에서 통역이 된 경우 ‘현대자동차의 주도로’와 같이 전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통역되거나 같이 누락/오역되는 모습을 보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ST를 구분하자 총 29개의 의미 단위로 나뉘었다.

3.2.2. 통역 분석

11명의 참가자 각자의 통역 녹음본을 전사한 후 이를 ST와 비교·대조 분석하였다. 통역 내용을 ST의 1-29번의 의미 단위와 하나씩 비교하여 ST의 내용이 정확히 통역되었으면 1) 통역, 통역에서 누락되었으면 2) 누락, 통역은 되었으나 ST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오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의미 단위가 노트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노트에 기록이 되었으면 가) 기록, 기록되지 않았으면 나) 미기록 두 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그 후 2) 누락 및 3) 오역으로 분류된 ST 의미 단위 중 가) 기록된 의미 단위에 대해 ST와 노트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ST - 노트에 기록된 기표 - 재생산된 TT” 3개 요소를 1:1:1로 매핑하여 이를 기초로 노트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통역에서는 누락되거나 오역된 46건에 대해 1차 원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래 [표2]는 29개

의미 단위에 대한 분석 및 분류 방법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통역 분석/분류 방법

ST	TT와 대조	Note와 대조	Note 심층 분석
29개 의미 단위로 구분 후 각 의미 단위에 대하여	1) 통역	가) 기록	X
		나) 미기록	X
	2) 누락	가) 기록	O
		나) 미기록	X
	3) 오역	가) 기록	O
		나) 미기록	X

3.2.3. 노트 분석

각 참가자의 노트에 표기된 단어, 약어, 기호의 개수를 수량화하여 집계한 후 노트데이킹 분량과 누락 및 오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노트에 기록되었으나 통역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오역된 의미 단위에 대해 노트 기표의 의도(ST의 내용 중 무엇을 쓰고자 했는지)와 통역 재생산 과정에서의 누락 및 오역 이유에 대해 각 참가자의 확인을 받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집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트에 기록되었으나 누락 및 오역된 의미 단위에 대해 노트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오역된 경우 ST와 TT, 그리고 노트를 대조·분석하여 노트 상의 어떠한 문제가 오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크게 3가지의 문제 유형이 노트에서 발견되었다.

4. 분석 결과

4.1. 학생 영한순차통역에서 누락 및 오역의 정도

통번역대학원 1학년 학생들의 영한순차통역에서의 누락과 오역의 정도를 각 참

가자의 통역 전사본과 ST를 의미 단위로 대조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순차통역 수업 시 학생들의 통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일차적 학습 목표가 누락과 오역을 줄이는 것인데(Setton et al., 2016: 179) 막상 학생들의 통역 충실도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어 누락과 오역 현황 파악을 위한 첫 단계로 이를 집계하였다.

선행 연구 중 영한순차통역에서의 충실도(또는 누락과 오역이 비율)에 대해 보고된 자료가 없어 본 연구 참가자들의 누락 및 오역 현황을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통역 및 노트테이킹 상의 현상들이 통역 충실도 수준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수치를 집계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 참가자별 전체 ST 대비 누락 및 오역 비율과 노트에 기록된 총 노트량에 대한 집계는 [표3]와 같다. 총 노트량은 노트에 기록된 기표(단어, 약어, 부호)의 합산 수치이다.

[표 3] 학생 영한 통역 누락과 오역 현황과 노트량과의 관계

참가자	누락	오역	누락+오역	충실도	총 노트
1	37.9%	24.1%	62.0%	38.0%	20
2	34.4%	17.2%	51.7%	48.3%	28
3	41.3%	6.9%	48.2%	51.8%	22
4	27.5%	17.2%	44.7%	55.3%	21
5	10.3%	17.2%	27.5%	72.5%	21
6	20.7%	31.0%	51.7%	48.3%	31
7	3.4%	13.8%	17.2%	82.8%	30
8	0.0%	10.3%	10.3%	89.7%	33
9	0.0%	6.9%	6.9%	93.1%	22
10	17.2%	10.3%	27.5%	72.5%	23
11	0.0%	3.4%	3.4%	96.6%	27
평균	18%	14%	33%	65.2%	25.1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11명 참가자의 영한순차통역 충실도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충실도는 100%에서 누락과 오역을 차감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

는데 가장 높은 참가자는 100에 근접한 96.6%인 반면, 가장 낮은 참가자는 절반에도 못미친 38%였고 평균은 65.2%였다. 특이한 점은 학생들 간 충실도가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고 양 극단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8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충실도를 보인 비율이 30%(4명), 50%대 이하의 낮은 충실도가 45%(5명), 60%-70%의 중간 비율이 18%(2명)로 중간이 높은 일반적인 정규분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첫학기 수업을 받고 있는 신참 통역 훈련생들의 특성일 수 있는데, 노트테이킹을 하면서 능동적 듣기와 분석을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 학생군과 그렇지 못한 학생군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흥미로운 부분으로 생각된다.

영한 순차통역 중 기록된 노트 총량을 보면 가장 낮은 노트량은 20, 가장 높은 노트량은 33을 기록해 노트를 가장 적게 한 참가자와 가장 많이 한 참가자 사이에 50%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트량과 순차통역 커버리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확한 정비례 관계는 아니나 대체로 노트량이 높은 참가자가 순차통역에서 높은 충실도를 기록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가장 높은 충실도를 기록한 참가자 11은 27의 노트량을 기록하였고 가장 낮은 충실도를 기록한 참가자 1은 가장 낮은 노트량인 20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학원생의 경우 노트 분량이 많을수록 높은 통역 품질을 기록한 것을 보고한 이주연(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장 높은 노트량인 33은 ST 총 단어수의 29.7%인 점을 감안할 때 노트량이 30%에 근접할수록 순차 통역의 충실도가 높아진다는 서유경(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를 보인 참가자들도 있었다. 노력 및 오역은 네 번째로 높았지만 노트량은 두 번째로 많았던 6번 참가자, 노력 및 오역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노트량은 네 번째로 많았던 2번 참가자, 그리고 노력 및 오역은 두 번째로 낮았지만 노트량은 4번째로 적은 9번 참가자가 그 경우인데 이들의 경우 노트 분석을 통해 불일치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참가자 6번의 경우 노트테이킹의 구조화를, 즉 들어쓰기나 세로 쌓기(stack)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문장성분이 노트를 통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 결과 명사로 기록된 노트의 경우 주어를 목적어, 목적어를 주어로 통역하는 오류를 여러 번 반복하여 많은 노트량에도 불구하고 오역이 많았다. 2번 참가자의 경우 긴장한 탓인지 통역 시 첫 단락을 통째로 누락하고 두 번째 단락부터 통역하여 누락이 많아졌다. 9번 참가자의 경우 노트량이 많지 않았음

에도 누락 없이 충실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언론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참가자의 주제 친숙도가 노트를 많이 하지 않고서도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4.2. 노트테이킹과 연계된 누락 및 오역

참가자들의 순차통역에서 집계된 누락과 오역은 각각 58건과 46건으로 둘을 합치면 총 104건이다. 이들 총 104건의 누락과 오역을 노트에서 추적해 보니 노트에 기록된 건은 36건 기록되지 않은 건은 68건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순차통역의 누락과 오역을 노트테이킹과 연계하여 탐구하는 것이므로 노트테이킹에 기록되지 않은 68건에 대해서는 본고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노트에 기록된 36건에 대해서만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수치를 통해 전체 104건의 누락과 오역 중 34.6%에 해당하는 36건은 노트테이킹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오류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체 누락과 오역에 대한 노트 기록 비율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누락 및 오역 건에 대한 노트 기록 여부

	누락/오역	노트에 기록	노트에 미기록
총 누락된 의미 단위	58	12	46
총 오역된 의미 단위	46	24	22
총계	104	36	68

통역에서 누락된 58건을 보면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46건이 노트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누락은 노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원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순차 통역 시 노트테이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였고(Gile, 1995; Lim, 2006), 한 때 노트량이 적을수록 듣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은량의 노트가 권장되기도 하였으나 원천텍스트가 점점 전문화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원 순차통역 수업에서는 노트량을 30%에 근접한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트에 기록은 하였으나 통역 과정에서 기표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내지 못해 누락으로 이어진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약어와 기호를 활용하여 기표한 노트테이킹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한 약어와 기호를 기억하지 못해 발생하는 1) 기표 문제(8건)로 보여 기호와 약어 사용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문장 구조를 시각적으로 잘못 표기한 2) 구조화의 문제(2건), 핵심어를 잘못 선택·기록하여 누락으로 이어진 3) 핵심어 오류(2건)도 발견되었다.

오역의 경우 총 46건 중 노트테이킹에 기록된 건이 24, 미기록된 건이 22로 그 비율이 비슷했다. 노트에 기록되지 않은 오역의 경우, 듣기 과정/기억을 하는 과정/기억을 불러내는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추적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오역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에도 가급적 노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오역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 노트테이킹 중 기록은 하였으나 정확한 통역으로 이어지지 않은 24건에 대해서는 ST와 TT 노트를 교차 분석하여 원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노트에 기록은 되었으나 정확한 통역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1) 노트테이킹 상의 문제와 2) 통역 상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이중 노트테이킹 상의 문제는 노트테이킹 방식에 대한 피드백과 지도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순차통역 수업 시 다루어 이로 인한 누락과 오역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통역 상의 문제는 노트테이킹의 직접적 영향 없이 ST를 TT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라) 청해 단계에서의 오류와 마) 재생산 단계에서의 오류로 세분화할 수 있다. 노트에 기록되었으나 순차통역 과정 중 발생한 누락과 오역에 대한 세부 유형과 각 유형별 빈도는 [표5]에 제시되어 있다. 이중 가)-다)은 노트테이킹과 연관되어 있어 노트테이킹 훈련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유형이며 라)-마)는 노트테이킹 보다는 청해와 말하기 관련된 오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영한순차통역에서의 누락과 오역 전체 104건 중 노트테이킹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어 노트테이킹 개선을 통해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은 25건으로 이는 총 누락과 오역의 24%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5] 노트에 기록된 누락과 오역의 유형

노트된 누락 및 오역 (36건)	누락건 (12건)	가)구조화 부족 (2건)	들여쓰기, 가로선 사용, 세로쓰기(stackng), 인과관계 표시 등 노트를 구조화/계층화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주어를 목적으로, 부사구를 주어로 전환하는 등의 문장성분 오류, 문장 간 경계 표시 부재로 앞 뒤 문장 혼합 오류 등이 대표적임.
		나) 기표 미인식 (8건)	핵심어 기표 시 알아보기 어려운 약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기표의 의미를 유추하지 못하여 누락이나 오역으로 이어짐.
		다)잘못된 핵심어 (2건)	구나 절로 이루어진 아이디어에서 핵심어 대신 비핵심어를 노트에 적음으로써 핵심 내용을 상기하지 못하거나 오역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역건 (24건)	가)구조화 부족 (7건)	들여쓰기, 가로선 사용, 세로쓰기(stackng), 인과관계 표시 등 노트를 구조화/계층화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주어를 목적으로, 부사구를 주어로 전환하는 등의 문장성분 오류, 문장 간 경계 표시 부재로 앞 뒤 문장 혼합 오류 등이 대표적임.
		나) 기표 미인식 (1건)	핵심어 기표 시 알아보기 어려운 약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기표의 의미를 유추하지 못하여 누락이나 오역으로 이어짐.
		다)잘못된 핵심어 (5건)	구나 절로 이루어진 아이디어에서 핵심어 대신 비핵심어를 노트에 적음으로써 핵심 내용을 상기하지 못하거나 오역으로 이어지는 경우
		라) 청해 오류 (6건)	원천어를 듣고 노트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휘/내용으로 기록하는 경우로 주로 청해 상의 오류로 보임.
		마) 재생산 오류 (5건)	원천어를 정확히 노트에 기록하였으나 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통역하여 오역이 되는 경우. 숫자를 맞게 적은 후 통역 시 자릿수를 잘못 읽는 경우 등.

4.3. 순차통역의 누락 및 오역을 초래하는 노트테이킹 유형

순차통역의 누락과 오역이 노트테이킹 상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이것이 TT 재생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크게 위의 [표 5. 노트에 기록된 누락과 오역 건의 유형]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라)와 마)는 노트테이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가)~다)에 대해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유형 가)는 구조화의 문제로 인해 누락이나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화란 노트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들여쓰기, 화살표, 가로선 등 시각적 방법을 이용해 문장의 주요 문장성분을 표시하고, 문장성분 간 관계를 도식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1]의 ①은 ST 'Kia Motor Group's factory in Georgia'를 기표한 것인데 Kia Motor Group과 이를 수식하는 factory in Georgia와의 관계가 노트에서 화살표로 연결되어 마친 원인-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된 노트를 통해 TT는 "기아 자동차 그룹이 조지아에 공장을 설립하면서"로 재생산 되었다. 오역의 원인이 ST의 개념을 시각적/구조적으로 부정확하게 기표한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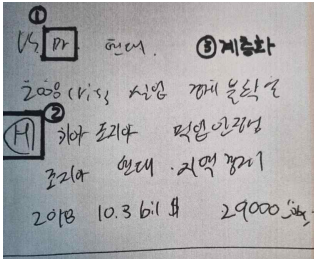
또 ②는 ST 'have brought significant benefits to the regional economy'에 대한 기표로 통역사는 '앞의 내용의 결과로 미국에 '이득'(benefit)이 발생했음'을 적고자 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regional economy 지역 경제'를 기표하는 과정에서 '이득' 아래 이득과 동등한 층위로 '경제'를 표기함으로써 시각/구조적으로는 '경제'가 '이득'에 부속되는 개념이 아닌 등등한 개념인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노트를 통해 재생된 TT는 "이득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였다. 이 경우 역시 오역의 원인을 노트 구조화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ST	Note	TT
...Kia Motor Group's factory in Georgia kept its workers, providing much needed job security... ...have brought significant benefits to the regional economy.		... 기아 자동차 그룹이 <u>조지아에 공장을 설립하면서</u> 직업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 ...그리고,미국 도시 전역에 걸쳐 경제적인 이득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갔습니다.

(그림 1) 노트 구조화 문제로 인한 누락 및 오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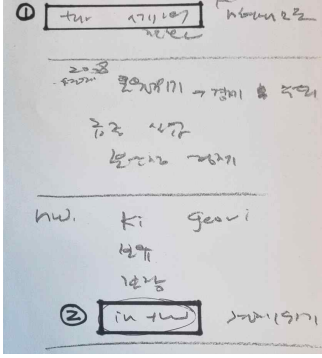
유형 나)는 기표의 문제로 인해 누락과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림2]에서 볼드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노트테이킹은 되었으나 실제 순차통역 과정에서는 누락된 사례이다. 그림에 ①로 표시된 ‘Dr’은 ST의 ‘direct foreign investment’를 축약어 형태로 적은 것이나 TT 재생산 과정에서 축약어의 의미를 기억해내지 못해 통역에서 누락되었다. 그림에 ②로 표시된 ‘H’ 또한 ST의 ‘however’를 부호화한 것인데 이 역시 통역 재생산 과정에서 무엇에 대한 부호인지 기억해내지 못해 통역에서 누락되었다.

[그림2]의 경우 위의 ①, ②에서 전술한 기표의 문제 이외에도 노트 전체에 구조화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노트가 전반적으로 세로쓰기가 아닌 가로쓰기를 하고 있으며 문장 간 경계가 표시되지 않았고, 들여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장의 구조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1행과 2행이 모두 명사로 시작하는 경우 2행의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오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ST	Note	TT
<u>Foreign direct investment</u> in the US by the South Korean private companies... ...<u>However</u>, Kia Motor Group's factory in Georgia kept its workers...		... 누락 ... 누락

[그림 2] 기표 및 구조화의 문제 복합 작용

유형 다)는 잘못된 핵심어 선택으로 인한 누락과 오역이다. [그림3]의 ①에서 ‘tur 세기’로 기록된 노트는 ST의 ‘at the turn of the century’에 대응되는 기표이다. 내용을 분석적으로 들었다면 이것이 21세기 초를 지칭함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핵심어로 turn 대신 ‘21C’ 정도를 적었을 것이다. 실제 핵심 내용과 상관 없는 노트였기 때문에 이 노트는 ST의 내용을 상기시키지 못했고 해당 학생은 기표의 의미를 고민하다 TT 재생산 시 누락시켰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ST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어를 추출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들리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받아적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②의 ‘in the’는 ST ‘in the midst of financial crisis’를 노트에 기록한 것인데 핵심어인 ‘경제위기’ 앞에 불필요하게 ‘in the’를 적었다. 이로 인해 통역에서 TT는 ST와도 노트와도 일치하지 않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로 재생산되었다. 핵심어가 아닌 불필요한 노트는 재생산 과정 중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순간적으로 노트에 있으니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핵심어일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ST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오역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T	Note	TT
DI in the US by South Korean private companies began at the turn of the centuryproviding much needed job security in the midst of financial crisis		...누락 고용 안정을 보장해 주었고, 여러 경제적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림 3) 핵심어 추출 문제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통번역대학원 1학기 학생들의 영한순차통역 결과물(TT)과 순차통역 중 작성한 노트, 원천어 텍스트(ST)를 교차 분석하여 영한 순차통역에서의 누락과 오역 발생의 원인을 노트테이킹과 연계하여 찾아보고 이를 통해 오역과 누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트테이킹 분량과 순차통역 누락 및 오역의 관계에 있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트량이 증가할 때 누락 및 오역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한순차통역에서 누락되는 내용의 약 80%, 오역되는 내용의 50%는 노트테이킹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영한순차통역 누락과 오역의 주요 원인이 노트테이킹 단계에서의 누락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한순차통역의 누락과 오역의 많은 부분이 노트테이킹에서 누락으로 드러난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노트테이킹에서 누락의 원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노트량 증대가 순차통역의 충실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체 누락과 오역 중 노트에 기록은 되었으나 통역 시 누락 또는 오역으로 이어진 비율은 각각 20.7%(12건)와 52.2%(24건)였다. 노트가 되었으나 누락으

로 이어진 12건(20.7%)은 다시 가)노트 구조화의 문제(2건), 나) 기표의 문제(8건), 다) 잘못된 핵심어의 문제(2건)로 세분화되었다. 한편, 노트가 되었으나 오역으로 이어진 24건(52.2%)은 1)노트테이킹 상의 문제(13건-54%)와 2)통역 상의 문제(11건-46%)로 구분되었고 이중 노트테이킹 상의 문제는 다시 가) 노트 구조화의 문제(7건), 나) 기표의 문제(1건), 다) 잘못된 핵심어의 문제(5건)로, 통역상의 문제는 라) 청해 오류(6건)와 마)재생산 오류(5건)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상을 통해 전체 누락과 오류 104건 중 노트테이킹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이 25건(24%)에 달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영한순차통역에서의 누락과 오역은 청해와 연관된 부분이 많으나 노트테이킹 상의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트에 기록된 기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주로 해당 내용은 누락되는 반면, 노트의 시각적 구조화가 잘못되거나 핵심어를 잘못 선택하여 기록하는 경우 ST의 내용이 왜곡되어 오역으로 이어짐을 보여줘 노트의 구조화와 정확한 핵심어 추출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노트테이킹의 구조화는 들여쓰기/세로쓰기/stacking 등을 통한 문장성분의 시각화, 아이디어 바운더리 표시하기, 동적 노트테이킹 등 다양한 스킬을 포함하므로 순차통역 수업 시 각 스킬/테크닉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와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확한 핵심어 추출 연습과 노트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축약어 및 기호의 활용에 대한 훈련도 학생들의 노트테이킹 숙련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노트테이킹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및 교수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노트테이킹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긴 하나 본 연구 결과가 학생들의 노트테이킹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영한순차통역의 오역과 누락을 줄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11명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며 향후 대규모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일반화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트에 기록되지 않은 누락과 오역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 학생들과의 심층 인터뷰 및 성찰(reflection)을 통해 향후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학원 1학기 학생들로서 본 연구를 통해 보고된 내용은 통번역대학원생 전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특정 집단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보애 (2019).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계층화에 관한 사례연구 - 한일 순차통역 입문 수업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2), 1-30.
- 김한식 (2002). 한일 통역 및 번역 강의에 대한 연구조사: 통역번역대학원 재학생 및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6, 21-51.
- 김훈밀 (2021). 노트테이킹 지도를 위한 피드백 모델 제안: 피드백 평가 항목, 포맷 및 모드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9(1), 7-32.
- 김혜영 (2022). 순차 통역의 오류와 노트테이킹의 관계 - 학부 순차 통역 수업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4(1), 59-80.
- 서유경 (2014). 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의 상관관계 실증적 연구 - 노한 순차통역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341-359.
- 이미경 (2014). 통역사의 정보처리 부하와 노트테이킹의 양적관계. 통번역교육연구. 12(3), 105-127.
- 이주연 (2017). 노트테이킹에서의 언어 선택 : 한국어와 영어의 사례. 통역과 번역. 19(3), 65-84.
- 이지은, 최문선. (2012). 효과적인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교수법 - 영한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4), 169-195.
- 이창수 (2001). Note-taking을 도착어로 할 때의 교육적 장점 연구. 통번역연구소 논문집. 5, 97-111.
- 임순정 (2017). 통역 학습자의 노트테이킹 분석 및 교수법 제안. 통역과 번역. 19(1), 113-138.
- 진실희, 원종화 (2019). 체계적 노트테이킹 학습을 위한 사례연구 - 점진적 책임 이양 수업 설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4), 231-261.
- Chen, S. (2017).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New data from pen recording. *Translation & Interpreting*. 9(1), 4-23.
- Dam, H.V. (2007). What makes interpreters' notes efficient?: Features of (non-)efficiency in interpreter's notes for consecutive. In Y. Gambier, M. Shlesinger & R. Stolze (Eds.), *Doubts and*

- Directions in Translation Studies: Selected Contributions from the EST Congress*, Lisbon 2004 (pp.183-197). Amsterdam: John Benjamins.
- Ficchi, V. (1999). Learning consecutive interpretation. *Interpreting*, 4(2), 199-218.
- Gile, D.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u.a]: Benjamins.
- Gile, D. (1999). Variability in the perception of fidelit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Hermes*, 22, 51-79. doi: 10.7146/hjlcbl.v12i22.25493
- Gillies, A. (2005).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A Short Course*. Manchester: St. Jerome.
- Lim, H. O. (2006). A Post-modern of Note-taking. *Forum*, 4(2), 89-111.
- Pöchhacker, F. (2002). Researching interpreting quality: Models and methods. In G. Garzone & M. Viezzi (Eds.), *Interpreting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p.95-106), Amsterdam: John Benjamins.
- Seleskovitch, D. (1968). *L'Interprete dans les donfierences internationales: problems de langage et de communication*. Paris. Letters Modernes.
- Setton, R., & Dawrant, A. (2016). *Conference Interpreting: A Trainer's Guid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부록 1

영한 순차통역에 사용된 ST 전사본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by South Korean private companies began at the turn of the century, led by Hyundai Motor Group.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aused a recession in the US, leading to a surge in unemployment and creating uncertainties about the economy.

However, Kia Motor Group's factory in Georgia kept its workers, providing much needed job security in the midst of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to Georgia factory, Hyundai manufacturing facilities in Alabama and parts suppliers across the US have brought significant benefits to the regional economy.

As of 2018, Hyundai Motor had invested \$10.3 billion in the US and created more than 29,000 American jobs.

김훈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전공언어: 영어

관심분야: 통번역 평가, 통번역 교육, 통번역 모델

E-mail: hoonmilk@igse.ac.kr

1) 최규수(2009:24)는 어절을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자립 형식인 '말마디'로 정의한다.